



RaonAtti 6th vietnam

9월 보고서^^*



김남규 김민호 김슬기
장현진 황주희

9월은 Học Tiếng Việt!!!

sep,

memo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01 | 02 | 03 |
| | | | | | 베트남으로 출국 | O.T |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City Tour~ | | 베트남어 공부 시작! | | 민호오빠 생일 | 베트남어 시험!!!! | 추석맞이 단기 자원활동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호키민외국어 정보대학교 방문 | | | 베트남어 시험!!!! | 벤탄시장으로~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정년.. 어두워졌=_= | 호키민외국어 정보대학교 한국어과 한국어수업 | | 호키민외국어 정보대학교 한국어과 한국어수업 | 베트남인 |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월남쌈먹으러 간날.. | 베트남어 시험 그리고 베트남음식 만들었음!! | 짜조, 짜비 |

Olivia
Jung



2011/ 9/ 2 (금)

오전 10 : 00 인천 공항에서 출국
간사님 그리고 정들었던 6기 아띠들과 헤어지는 시간.
5개월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오후 1 : 00 시에 홍콩 도착
베트남 와이 분들께 드릴 초콜릿 사기. 기내식 남남남.
우리는 홍콩공항에서 3시간을 보내야했다.
공항의자에 앉아 즐기도.....



오후 5 : 00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 !
베트남 공항에서 슬기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는 남자 분 나타났음 오호 ㅋㅋㅋ
비자 때문에 검색대에 걸려서 당황했으나, 잘 해결되었다 ^^ 울 뻘했음 ㅠㅠ
사무총장님을 처음 보았다. 인상이 인자하신 사무총장님.
우리 코디인 카와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다.
카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어과를 졸업해서 한국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걸지 않는 수줍음을 보였다.
화 아주머니가 해준 저녁식사를 베트남 와이에 도착해 먹었다. 새우조림, 토마토계
란샐러드, 돼지고기 호박 국, 소고기 콩 껍질 볶음 그리고 용과 까지 한상 배부르게
먹었던 베트남에서의 첫 저녁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꼬화 음식 완전 좋다.

호텔 도착. 뭔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완전 쾌적하고 좋다.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기
대되고 설레는 밤이다.^^*

2011/ 9/ 3 (토) O.T



오늘은 오티를 듣는 날 ~

1. 호텔에서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메뉴는 검뎨미란다. 베트남에서는 검미 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밥과 간단한 반찬이 나오는 메뉴 이름이 검뎨미란다. 반숙의 계란 프라이와 오이 그리고 토마토와 닭튀김 그리고 기름

에 볶은 파를 얹은 밥이 개인 접시마다 예쁘게 담겨 나온다. 미지근한 생수에는 کمی막한 얼음 하나를 넣어주시는데 금방 시원해지는 게 마시기에 좋았다.

2. 호텔 옥상에서 본 하늘이 정말 예쁘다. 우리 숙소는 2층이고, 한 층 더 올라가면 3층에 주인 할머니와 식구들이 사는 방과 조그만 옥상과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다. 밥을 먹고 나와서 건너편에 위치한 옥상에는 빨래들과 구름이 몽실몽실 달려있는 파란하늘이 보였다. 한국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보니 작은 것 하나에도 더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3. 와이에서 오티 듣기. 6기 코디인 카와 5기 코디였던 쟁이 함께 해주었다. 앞으로의 우리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었고, 베트남어로 이름도 지어주었다. 남규오빠 이름은 평이다. 바람이라는 뜻이란다. 민호오빠 이름은 먼이다. 똑똑하다는 뜻이란다. 주희언니 이름은 지다. 보통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란다. 쟁은 현진이 이름이다. 쟁도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인데, 베트남 꽃 이름이란다. 슬기 이름은 쑤언이다. 봄이라는 뜻이다. 이름이 다들 예쁘다.

4. 점심을 먹고, 와이 근처를 알려주었다. 마을탐방이랄까. 바나나 튀김도 먹어보고, 신포 먹는 곳도 알려주고, 과일가게도 지나고, 슈퍼도 지나가고, 옆에 흐르고 있는 사이공 강도 보았다.



5. 시에스타 시간의 햇볕은 너무 강해서 마을탐방을 금방 마치고서 와이 옆 카페에 들어갔다. 아이스밀크커피랑 아이스커피랑 레몬에이드랑 코코아를 시켜서 먹었다.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커피는 다르다. 진하게 내린 커피에 연유를 넣어서 얼음과 섞어 먹는데, 달콤하면서도 씹스름한 맛이 좋았다. 커피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게 게임도 했다.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다.

2011/ 9/ 4 (일) City Tour



오늘은 코디 카오빠랑 쟁언니랑 시티투어 하는 날 ~



1 독립기념관. 전쟁의 참상과 항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건, 항전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한 점이었다. 베트남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묻어나는 듯 하다.

2. 노르트담 성당. 민호오빠랑 남규오빠랑 주희언니는 안에도 구경했는데, 현진이와 슬기는 목주팔찌 산다고 앞에서 어정거리다가 입장 시간을 놓쳐 안을 구경하지는

못했다. 아무튼 성당의 외형은 참 예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3. 중앙우체국. 스페인 외국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중앙우체국에는 기념관이 있다. 기념품 예쁜 거 참 많다. 돌아갈 때 사야겠다는. 기념관에서 인도에서 오신 신부님을 우연히 만나 아까 산 목주팔찌의 축성을 받았다. >< 이번엔 주희언니가 인도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 꽤 재미있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다. 슬기의 스페인어도 +_+



4. 점심을 먹고서 다가온 햇볕을 피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플라자에 들어갔다. KFC에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스티커사진도 찍고 게임장 가서 게임도

했다. 한국물건 여기선 비싸다.

5. 통일궁. 대통령의 관저였고, 지금은 그 당시 항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박물관이 되었단다. 여기선 주희언니 스타일의 미국인 브라이스를 만날 수 있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놀았다. 언니의 수줍음이 인상적이었다.

6. 벤탄시장. 조그만 아이들까지 물건을 팔러 사람들 사이를 누리고 부탁하는 것이 못내 안쓰럽고 미안했다.

기념품 가게 아저씨의 흥정능

력은 실로 대단했다. 사람 냄새나는 시장의 모습이면서도, 외국인들의 소비심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011/ 9/ 5 (월) 베트남어 수업시작

오늘부터 카와 함께하는 베트남어 수업 시작~



2011/ 9/ 6 (화)

1. 오늘도 베트남어 수업
2. 호텔식구들과 비아 사이공

2011/ 9/ 7 (수)

1. 베트남어 수업 끝나고 마을 구경. 테니스장 쪽으로 가봤다. 여기 집들은 규격화되어있는 모양새다. 민호 오빠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왕이 집의 가로길이를 정해놓아서, 베트남은 세로로 긴 집의 형태를 띠고



있단다. 자로 잰 듯 반듯 반듯 하게 생기고, 집과 집 사이의 공간도 반듯반듯 남아 있어서 여기를 돌아도, 저기를 돌아도 골목이 비슷하고 그런 점이 신기하다.



2. 회의 시간에 민호오빠 생일 물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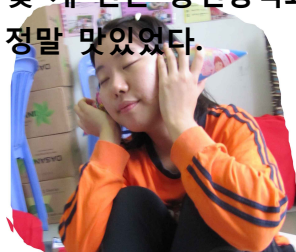
3. 회의 끝나고는 카드게임 삼매경

2011/ 9/ 8 (목)



1. 민호오빠 생일>>

2. 베트남어 수업하고 민호오빠 깜짝 파티 했다. 카가 집 근처 뚜레쥬르에서 사다 준 초코케이크와 어설피지만 점심시간에 몇 개 만든 풍선장식과 함께. 오랜만에 케이크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2011/ 9/ 9 (금)

1. 수업 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금요일에는 카의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자기소개도 테스트를 했다. 1등은 민호오빠다. 오호

2. 오후엔 내일 갈 자원 활동에 가져갈 선물을 샀다. 노트랑 펜.
3. 내일 가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연습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와 올챙이 송 그리고 곰 세 마리에 맞추어 출 울동, 베트남 중추절 노래를 맹연습.

2011/ 9/ 10 (일) 추석맞이 자원 활동



추석맞이 단기자원 활동~



1. 5기 코디 쟁 언니가 속해있는 청년봉사활동단체와 함께 중추절을 맞아 자원활동을 다녀왔다. 5시 30분에 택시를 타고 출발!

6시에 벤탄 시장에 도착해서 약속장소로 갔다. 아침식사는 깨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는 계란이랑 오이가 들어간 반미종. 완전 맛있다 ><



2.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 버스에서 자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친해지는 시간으로만 꼭 차 있는 게 인상적이었다. 정말 베트남의 대학생들, 청년들과



의 교류가 처음이라서 일까? 신기하고 새로웠다. 노래를 부르면서, 모자를 돌려서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이 나와서 자기소개와 노래 한 곡을 불러야 하는 게임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민호오빠가 걸려서 아리랑을, 주희언니가 걸려서 노바디를 불렀다. 노바디 반응 짱 ㅋㅋㅋ



3. 가는 길에 이름 모를 휴게소. 베트남 변기는 물이 적다. 물이 귀해서인지, 수압이 약해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이다. 근데 이 화장실은 물이 아예 없다. 버튼을 내리면 그제야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물이 나와 배설물을 그 문으로 넣고 다시 닫힌다. 그런 시스템이라서 일까?



4. 시골마을에 도착했다. 아침식사를 하러 근처에 산사에 멈추어 섰다. 동자승들의 표정이 맑고 예쁘다.

독특한 조각상들도 많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 채소로만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건 한국의 절과 같았다.



5. 식사 후 쉬는 시간.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트럭이 왔다. 조선시대에 있던 사당패가 이랬겠다 싶었다. 사자탈을 쓴 아이들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탈을 쓴 아이들이 바가지를 들고 춤을 춘다. 추석이라 사자놀이를 한단다. 탈 쓴 아이를 쫓으니깐 아이가 도망간다. 재미있어서 계속 쫓아갔더니 이번엔 다른 아이들이 가르르한다. 아이들이 갈 때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고, 아이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6. 베트남 와서 오토바이를 처음 타보았다. 완전 좋다. 시원하고 재밌다.

7.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집을 방문했다. 희귀병에 걸리신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고, 위로를 건네고, 부족하시지 않은 추석을 보내길 바라며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다.



8. 그래서인지 돌아오는 길에서 느끼는 오토바이는 달랐다.

이국적인 정취에 흠뻑 취하고 바람의 살랑거림에 취했던 처음과는 달리, 돌아오는 길에 바라보는 것들에서는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익숙해져

야 함을 생각했다.

9. 돌아와서 다시 사찰에서 점심식사.

10. 드디어 운동회 시간. 아이들과 뛰노는 시간. 맑고 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천사 같다는 말을 이렇게 느낄 때 쓰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1. 오늘 베트남의 국무총리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퍼포먼스 계획 등이 취소되어버렸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우리의 춤사위를 보여줘야 할 듯^^

12. 아이들과의 중추절 행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오전에 했던 운동회 시상식도 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동네 어른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동자스님까지도 한데 모여 등불을 키고 삼삼오오 모여 떠드는 것 자체가 참 즐거웠던 시간이다.



13. 교장선생님과 찰칵, 함께 했던 친구들과 찰칵, 헤어짐이 아쉬운 찰칵, 다음을 기약하는 찰칵 소리. 인심 좋은 교장선생님의 야식대접과 구아바 선물. 한보따리 챙겨주신 구아바. 맛난 구아바 ><



2011/ 9/ 11 (일)

1.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쉬기
2. 처음으로 반잇 먹은 날(반잇은 베트남 떡이다. 코코넛과 녹두가 들어간다. 달콤해 +_+)
3. 영화제 처음으로 한 날 -기생 령과 무도 시청

2011/ 9/ 12 (월)

1. 오늘은 추석
2. 반중추(추석에 먹는 빵) 남남남 맛있다
3. 화 아주머니와 께 아주머니, 럽 총장님께 복주머니와 국화꽃 선물을 드렸다.



2011/ 9/ 13 (화)



1. 오늘은 카의 누나가 교수님으로 계신 대학교에 방문.

카의 모교이기도 하다. 교수님은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 한국어과 학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시다. 교수님과 3학년 수업 조교인 터(tho)와 함께 수업자료와 유의점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다.



2. 학교 앞 카페에

갔다. 음료수를 시키는 법은 아직도 너무 어렵다. 홍차에 젤리 들어간 음료수랑 우유에 젤리 들어간 거랑 과일 주스 시켜먹었는데, 항상 느끼지만 우리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기보다는 카가 시키는 것을 따라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



3. 카는 매너남. 음료수 쏟은 거 치워주고, 옷도 벗어주고,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ㅋㅋ



4. 오랜만에 차려 입고 나갔더니 완전 쑥스러웠다. 안 그래도 외국인이라 쳐다보는데, 다들 사방사방하게 입고 단체로 돌아다니니까 더 쳐다보더라.



2011/ 9/ 14 (수)

1. 여공들의 일을 도와준 날.

생각보다 일하는 환경이 어려웠다. 눈도 아프고, 공기도 탁해서 목도 아프고. 날마다 오래도록 이런 일을 반복했을 공장식구들이 안쓰러웠다. 다음에 마스크 같은 걸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한 번의 일감이었지만, 날마다 생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례가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일에 집중해서 공장식구들과 많이 친해질 시간은 없었지만, 이렇게 차츰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2. 오늘따라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다. 따뜻한 햇살에 내 몸도 나른해지고 기분은 더없이 여유워서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예쁘다.

2011/ 9/ 15 (목)

1. 오늘은 카가 점심에 비빔밥을 해주었다. 야채랑 삶은 돼지고기와 계란 후라이를 얹고 고추장을 넣어서 먹은 비빔밥은 한국보다 더 맛있었고, 혹시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까봐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화 아주머니와 카의 마음이 더 고마웠다.
2. 카는 고추장을 엄청 좋아한다. 짜고 매운데도 그걸 좋아한다. 어느 정도냐면, 밥에 고추장을 비빈다기보단, 고추장에 밥을 비비는 정도? ㅋㅋㅋ 자극적인 맛 좋아하는 카
3. 정말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고 보니 사진을 안 찍었다. 아뿔싸

2011 / 9 / 16 (금)

1. 시험 쳤다. 말이 시험이라 느꼈지만 꼴등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오는 적막이 우리를 감쌌다ㅋㅋㅋ
2. 카 시험 꽤 체계적이다. 스피킹 시험 따로, 필기 시험 따로다.

3. 현진이 처음으로 여기 와서 머리 잘랐다. 동네 미용실인데 섬세한 커트가 인상적이다. 2만 5000동이다. 친절하고 싸다고 완전 좋아했는데, 나중에 여공들을 통해서 안 사실이지만, 비싼 거란다. 다음부터 그래서 여공들이 소개해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다. 암튼 예쁘게 잘 잘랐다. 차도녀 스타일 ㅋㅋ

2011 / 9 / 17 (토)



있어 맛있어 쿡쿡

1. 중앙우체국 가는 길 . 버스를 잘못 내렸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야 되는데 다음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인향을 들고 물건을 파시는 아저씨 한 분이 신호등 건너는 걸 도와주셨다. 인상도 서글서글하시고 , 우리에게 어디를 가냐며 물어보셔서 대답도 하고 가고 있는데, 물건을 사라고 하신다. 민호오빠가 코코넛 2개 사주셔서 맛나게 먹었다. 시원하지 않았는데도 코코넛이 좋다. 맛

2. 중앙우체국 도착. 처음으로 베트남에 와서 한국에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다. 오랜만에 다들 듣고 싶었던 통화를 하고 있는지, 전화 부스너머로 보이는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한 가득이다.

3. 카와 쟁을 만났다. 우리의 약속장소는 벵탄 시장. 이따가 쟁 언니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러 가기로 해서, 배드민턴 채와 공을 사러 갔다. 물건을 다 살 무렵에 카가 와서 맛난 점심을 대접했다. 스파게티랑 샐러드랑, 고기랑, 신도랑 시켜서 먹었는데 샐러드가 제일 맛있었다. 토마토 스파게티밖에 없는 건 아쉬웠다. 크



림스파게티가 없다닛 없다닛 흐앙 ㅋㅋ 여기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토마토보다 달다. 그래서인지 토마토 스파게티 짠 맛보다 단 맛이 강해서 맛있긴 하다. 없어서 못 먹는다.



3. 스파게티를 먹고서 옆에 있는 쟁 플라자 구경을 했다.

필요한 것도 조금 사고, 시에스타의 햇별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KFC에 들어와 군것질을 한다. 녹색소비는 아닐테지만, 맛은 좋다. 줄이도록 노력 해야겠다.



4. 카와 헤어지고, 쟁언니와 함께 벵탄시장에서 배드민턴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실내배드민턴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옆 코트 사람들 완전 잘 쳐서 멋지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서는 우리도 열심히 배드민턴을 친다. 쟁언니의 친구들도 함께 와서 쳤다. 우리 팀원들은 운동을 거의 잘한다. 남규오빠, 민호오

빠, 현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한다. 주희언니랑 슬기가 약간 구멍이기는 한데, 배드민턴 재미지다.



5. 돌아와서는 영화제를 했다. 이번 영화제의 영화는 '풍산개'다.

2011 / 9 / 18 (일)

1. 폭 쉰 날.
2. 영화제를 이어서 했다. 이번 영화는 '씨니'. 그냥 영화 보는 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2011 / 9 / 19 (월)

1. 평소처럼 베트남어 수업
2. 내일 있을 수업 준비가 한창이다
3. 오늘 카와 함께, 게임을 했다 제로게임을 알려줬더니 오빠들이랑 완전 신나서 한다. 귀여운 카는 우리 코디다 ㅋㅋㅋ

2011 / 9 / 20 (화)

1. 오늘도 평범한 하루
2. 정전. 여느 때처럼 회의를 하고 여자 방에서 모여 있었는데, 정전이 찾아왔다. 온 세상이 어두워 졌다. 일전에 베트남에는 종종 정전이 짧고 길게 자주 있다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기에, 도란도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정전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친척집에 사촌들이랑 다 모이면 꼭 할머니에게 무서운 이야길 해달라며 방에 웅기증기 모



여 자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좋았다. 다시 켜지기를 종종거리며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릴없이 기다릴 수 있어서 더 좋았다. 그래서 일까, 반짝이는 달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까만 베트남의 정전을, 그 하늘을 다시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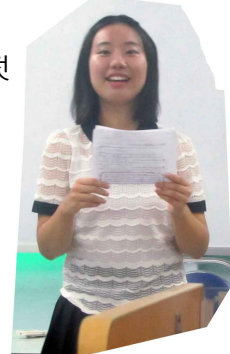
2011 / 9 / 21 (수)



1. 호치민 외국어정보대학 한국어과 특별 강의의 날. 5시 30분에 기상, 6시 30분에 출발했다. 베트남의 아침은 이르기에도 도로가 붐볐다. 오늘도 껌 할머니가 싸주신 반미를 먹었다. 수업 때문에 긴장해서인지 울렁거리긴 했지만, 역시 맛있었다.



2. 8시 30분 2학년 수업에 첫 시작은 '한국의 외식문화'에 관한, 슬기의 수업이었다. 9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는 3학년 수업으로, 중추절, 추석에 관련된 남규오빠와 민호오빠의 수업이었다.
3. 점심에 사먹은 검뎀. 돼지껍데기와 돼지고기, 느억맘보다 조금 진한 젓갈소스, 계란 프라이와 야채를 넣고 비벼서 먹는 음식. 맛있었다.



4. 랩실에서 수업 피드백 나누기.
5. 카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고마웠고, 모두가 앞으로 살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더 뜻 깊었다고 느낀 하루였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설명하면서, 모국어실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한글이란 게 생각보다 어렵다. 잘 모르기도 하고. 제2외국어로 한글을 접하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학습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우리가 베트남 대학생들과 교

류를 할 때에도, 그렇기에 작문이나 듣기의 수업보다는 발음이나 대화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1 / 9 / 22 (목)

1. 카가 떡볶이 해준 날. 고추장 홀릭 카답게 고추장 500g 다 썼다. 이렇게 고추장 한 통 떡볶이에 다 넣어본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은근히 매웠다. 물을 많이 넣고 고추장도 많이 넣어서 하는 카의 떡볶이는 중독성이 있다. 맛있는지 몰랐는데 젓가락 놓기가 힘든 정도?
2. 카가 재료를 사러 한인슈퍼에 가는 길에 개피떡이랑 꿀떡이랑 김밥도 사다줬다. 완전 맛났음. 까양 김밥김밥
3. 오늘 슬기 와이 맞은편 집 야마하 피아노 쳤다. 오랜만에 쳐보는 피아노라 정말 좋고 정말 좋았다. 참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치고 싶은데 못 치니까, 피아노가 더 치고 싶다. 피아노피아노피아노피아노

2011/ 9/ 23 (금)

한국어학과에 수업이 있는 날!



1. 7시 20분에 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로 출발, 93번 버스를 타고 벤탄시장에 가서 38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외국어 정보대학교^^
2. 현진이와 주희언니의 한국어 수업! 두둥! 12시에 한국어 수업이 끝났다. 1시 점심식사(호치민 외국어

정보대학교 뒤에 있는 껌땀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베트남 팔빙수인 쩌를 먹었다. 여러 종류의 쩌~ 진짜 통팔이 통째로! 먹으면 건강해지는 기분
^_^



3. 2시쯤 7군 한인 타운으로 출발, 카가 추천한 kim요거트에서 요거트먹고, 한인마켓에서 장을 보았다.(떡볶이 재료, 김치찌개재료) 그리고 카의 집으로 출발!



4. 4시쯤 anh kha의 집 도착, 교수님을 기다리고, 교수님이 오신 후 저녁 준비! 6시가 넘어서 드디어 완성~ 만찬을 먹은 뒤, 교수님댁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10시쯤 귀가!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



2011/ 9/ 24 (토)



- 1 .아침에 코코넛 마가린카레를 먹었다. 카레가 이렇게 달 수 있다니..... 인도에 오래있었던 주희언니마저 처음 먹어본 맛이란다.
- 2 .아침을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배드민턴을 하러 출발! 8번 버스에서 만난 버스 안내알바를 하던 대학생 여자 친구^^ 정말 친절했다.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고, 정말 고마웠던 친구!
3. 배드민턴을 친 후, 쟁언니와 먼오빠가 데려간 식당, 베트남 음식인 분짜(숫불

돼지고기), 렘잔(새우, 해산물)을 먹었다. 우하하 정말 맛있었다.

4. 숙소로 돌아온 뒤, 영화제(데이브레이크스-흠혈귀영화, 재미있었다.)

2011/ 9/ 25 (일)

이렇게 한가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2011/ 9/ 26 (월)

오늘도 어김없이 베트남어 수업^^

점심에는 토마토소스 생선구이, 국, 느억맘 소스를 뿌린 샐러드를 먹었고,

1시부터 2시는 시에스타!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수업! 오늘의 과일은 바나나~

저녁식사는 미역국, 마늘쫀 줄기 볶음, 두부랑 고기 조림 + 리치

Y에있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 뒤, 숙소로~

2011/ 9/ 27 (화)

오늘도 베트남어 수업!

남규오빠가 계속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명이 - 위장염 혹은 위염 혹은 장염 이라고 한다. 약은 3일치 받아왔고,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가야한다.ㅠㅠ

6시 여공들과 천을 뜯으며 대화를 한 뒤, 숙소로 돌아옴^^

2011/ 9/ 29 (목)월남 쌈..^^



8시 30분 까지 Y도착해서 11시 30분까지 공부를하고, 시에스타를 한 뒤, 3시부터 공부 시작! 5시에 월남쌈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하러 숙소에 들린 뒤,



바로 출발!

5시 30분 월남 쌈 식당도착 ~ 월남 쌈이랑 베트남 우동, 고양이 혀 과자를 먹고 숙소로 돌아옴, 카에게 월남쌈을 싸는 법도 배웠다. 월남 쌈을 파는 식당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야경이 최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 건너편에는 한국의 아파트 자이를 짓고 있었다.



2011/ 9/ 30 (금)

9월의 마지막, 벌써 9월을 마지막이라니! 베트남에 온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그렇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베트남어 수업!

저희 잘 살고 있어용+_+

저희 베트남팀은 녹색소비에 대한 공부를 한 뒤, 팀 회의를 걸쳐 아래의 약속을 정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요.+_+

🚲 녹색소비 · 약속 ♡

1. 차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샤워시간 5분 줄이기
3. 화장품소비 ↓ /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4. 컴퓨터 사용 하루 20% 줄이기
5. 화장지 사용 줄이기 (5칸)
6. 텀블러 사용 ↑ 플라스틱 생수 ↓
7. 패스트푸드 ↓ 슬로우푸드 ↑
8. 강바구니 ↑ 비닐팩 ↓
9. 전기절약 ♡ (에어컨, 냉장고)
10. 옷물려입기, 재활용 ~